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우리는 영원한 반란자입니다 - 멕시코 사파티스타

박정훈

2012년 12월 21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새벽, 원주민들이 라칸돈 정글 주변의 5개 도시에 나타났다. 그곳들은 모두 1994년 봉기 당시에 사파티스타들이 점령했던 곳이다.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무기를 들지도 않았고 성명서를 낭독하지도 않았다. 현수막이나 피켓을 들지도 않았다. 얼굴을 가린 스키마스크나 붉은 손수건만이 사파티스타들이란 것을 알려줄 뿐이었다. 원주민 중에는 울긋불긋 전통 의상을 입고 아이를 안은 젊은 여성들도 보였다. 이따금씩 칭얼거리는 아이 울음소리, 그것이 유일한 소리였다.

원주민들은 멕시코 깃발과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 깃발을 들고 질서정연하게 거리를 행진한 뒤에 도시 중심부에 무대를 세우더니 줄을 지어 그곳에 올랐다. 그리고선 왼손을 번쩍 들어 저항 의지를 표명하더니 다시 줄을 지어 내려왔다. 그렇게 홀연히 도시에 나타났다가 다시 홀연히 사라졌다. 완벽한 침묵 시위였다.

치아파스 5개 도시를 평화적으로 점령한 그 시위에는 4만 여 명이 참가했다. 사빠띠스타 원주민들이 벌인 단독시위로는 1994년 봉기 이후 가장 많은 수가 참가한 시위였다. 특히 1994년 봉기 이후에 사파티스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층들이 대거 참가했다. 여전히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시위 직후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매우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2012년 12월 21일 치아파스에서 침묵 시위를 하는 사파티스타 (출처: <http://www.alasbarricadas.org>)

“들었는가? 너희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우리들이 다시 등장하는 소리를!”

2012년 그해는 멕시코에서 12년간의 짧은 민주정부 시기가 끝나고 과거 71년간 집권했던 제도혁명당이 복귀한 해였다. 이 메시지는 다시 권좌에 복귀한 구 독재세력은 물론이고 이들의 귀환을 막지 못한 모든 정당과 세력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사파티스타들이 보기에 그들은 모두가 원주민 자치에 대한 방해꾼이었다.

사파티스타들은 2003년 자치운동을 선언한 이래 새로운 길을 걸어왔다. 본격적인 자치를 위해 행정제도를 정비했다. 봉기가 벌어지던 1994년 말에 이미 38개 ‘자치단위’를 창설한 적이 있는데, 2003년 8월에는 자치단위들의 대표들로 좋은 정부위원회(JBG)를 만들었다. 일종의 지방정부였다. 연방군을 싸우기 위한 군대체계는 자치지역을 방어하는 자위대로 전환되었다. 사파티스타운동의 무게 중심이 군사행동에서 정치와 행정으로 옮겨

간 것이다.

자치 실험이 본격화하면서 원주민 마을에는 진료소들과 약국들이 들어섰고, 의학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도 생겨났다. 아이들은 사파티스타 학교에서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언어를 배우며 원주민으로서 정체성과 긍지를 키우게 되었다. 농민들과 장인들은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커피, 콩, 옥수수 그리고 수공예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

그간 사파티스타들은 정부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은 채 자치운동을 벌여왔다. 멕시코와 세계 곳곳에 산재한 지지자들의 네트워크가 힘이 되었다. 의료와 교육, 생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원주민 자치라는 대의에 동조하는 이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주었다.

10여년의 자치운동은 어떤 성과를 남겼을까? “느리지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파티스타의 대답이다. 자치운동의 전진을 더디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정부였다.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도 받지 않고 원주민 공동체와 지지네트워크가 보유한 자원으로만 자치를 추진하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오히려 사파티스타의 자치를 방해해왔다. 그들은 게릴라의 지지기반을 없앤다는 목표 아래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 부어 원주민들을 갈라놓고 서로 대립하게 만들었다. 쏟아 부은 지원금이 치아파스 원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킨 것도 아니었다. 오로지 정부지지자들의 호주머니만 두둑해졌다.

하지만 사파티스타 원주민들은 다른 지역 농민들처럼 멕시코법이 금지하는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길을 가지는 않았다. 또한 정든 고향을 떠나 밤이슬을 맞으며 미국 국경을 넘지도 않았다. 대신에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비록 더디긴 하지만 꾸준히 성과를 축적해왔다.

사파티스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문제였다. 자치에 몰두하면서 멕시코 내외의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사파티스타들이 멕시코 사회를 뒤흔들 수 있었던 것은 치아파스의 가난한 원주민들의 문제를 멕시코 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문제로 만들어낸 비범한 능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부터 그 같은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2006년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이 벌인 ‘또 다른 캠페인’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해 멕시코 대선에서는 제도권 좌파야당인 민주혁명당(PRD)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다. 그 당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제도권에서 배제된 좌파의 결집에 나섰다. 말하자면 제도권 온건 좌파에 맞설 만한 ‘급진좌파’ 세력의 결집에 나선 것이었다.

그때 사파티스타들이 명시적으로 투표 보이콧을 주장하거나 민주혁명당 후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사파티스타들이 민주혁명당 후보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도 명확해보였다. 대선에서 사파티스타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의 민주혁명당(PRD)이 2001년 연방 상원에서 원주민 법안의 개악에 동참한 것에 배신감을 드러냈다. 게다가 사파티스타에 동조하는 ‘급진좌파’단체들이 민주혁명당 후보를 비토하기도 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선거 결과가 나왔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좌파 후보가 0.56% 차이로 패배했다. 초박빙의 패배인데다가 개표부정의 정황도 있었다. 선거 직후부터 재개표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활발하게 벌어졌고, 선거관리당국이 일부 투표소에서 재개표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우파 후보 펠리페 칼데론의 승리를 선언했다.

좌파의 집권을 바라는 시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패배의 책임을 놓고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혁명당의 몇몇 정치가들은 사파티스타들이 우파를 도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 비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파티스타에 우호적이면서도 제도권 좌파후보가 당선되길 바랐던 많은 시민들의 실망감이었다. 이들은 제도권 내부에서 조금의 변화라고 이뤄지길 바랐는데, 그 열망이 좌절되면서부터 사파티스타 운동에도 거리를 두고 시작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2년 대선 캠페인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정치운동이 등장했다.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등장한 “나는 132번째 대학생(#Yosoy132)” 운동이 대표적이었다. 이 운동은 구 집권세력인 제도혁명당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후보 측이 한 대학 강연장에서 자신에게 강력하게 항의한 이들이 과연 대학생인지 의심스럽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되었다. 131명의 대학생들이 직접 학생증을 보여주는 비디오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내가 132번째 학생’이라는 해시태크를 붙이는 운동이 뒤따르면서 제도혁명당 집권 저지를 위한 대규모 대



2018년 멕시코 대선 후보, 마리아 데 헤수스 파트리시오 (출처: <http://www.telesurtv.net>)

학생운동으로 커져갔다. 이 운동에서도 사파티스타운동의 퇴조가 명백해 보였다. 사파티스타의 정치운동은 급진적 반체제운동에 가까웠는데, “나는 132번째 대학생” 운동은 체제 내부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진보적인 후보를 선출하려는 적극적인 유권자운동에 가까웠다.

사파티스타운동은 한때 대학생들과 진보적인 시민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멕시코 민주화에 기여했다. 독재와 신자유주의에 분노하는 멕시코 시민사회로부터 뜨거운 지지와 우호적인 연대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민주화 이후에는 제도권 내부의 좌파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간과했고, 구 독재세력의 복귀를 막으려는 대학생들의 노력과도 유리되었다. 그 결과 멕시코의 구 집권세력인 제도혁명당(PRI)이 다시 복귀하였다.

지금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치아파스 원주민 자치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멕시코 제도 내부의 변화도 필요하고, 멕시코 내외부의 시민사회의 지지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2016년 10월에 사파티스타들은 전국에서 모여든 원주민 대표들과 숙의 끝에 2018년 대선

에 여성 원주민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결정했고, 2017년 5월에는 원주민 여성 인권운동가 마리아 데 예수스 파트리시오(María de Jesús Patricio)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1994년 봉기 이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이다.

멕시코라는 국가는 지금 마약조직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해졌다. 이런 국가를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더욱 강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국민의 생명권조차 지키지 못할 형편이 되고 말았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계급 전체를 비판하고 국가기구를 비방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제도 외부에서 가장 성공한 반체제저항운동을 이끌었던 원주민 게릴라들이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는 정치세력으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1994년 봉기 이후에 사파티스타들은 원주민과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인종적 벽을 부수고, 치아파스라는 지리적 경계를 훌쩍 뛰어넘고, 가난한 빈농과 도회지 중산층이라는 계층적 장벽을 극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2018년 대선에 출마한 여성 원주민 후보가 그 일을 다시 이룰 수 있을까?

사파티스타 원주민들은 늘 “우리는 영원한 반란자”라고 말해왔다. 대선 출마는 제도혁명당의 집권 연장을 막기 위한 ‘반란’일 뿐만 아니라 1994년 이래 20년 이상 유지해온 자기 전통에 대한 ‘반란’이기도 하다. 그 반란이 성공할 지는 치아파스 원주민의 운명을 멕시코 국민 다수의 운명과 절묘하게 결합시키던 사파티스타의 능력을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박정훈 — 라틴아메리카지역 전문가